

우리말 담화표지 ‘인자’ 고찰

김영철(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담화표지 ‘인자’의 담화기능 |
| 2. 담화표지 ‘인자’의 특성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계층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 ‘인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 집단의 독특한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음성이나 문자를 일컫는데 음성언어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²⁾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는 음성언어를 사용하면서

1) 임규홍(1996)에서 ‘인자’는 지역에 따라 형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주로 ‘인자’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인제’로, 충청도에서는 ‘인제’와 ‘인저’가 혼용되어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2) 김영철(2010)은 사회구성원들 상호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화자, 청자,

상황에 따라 특정한 단어의 사용, 생략 등 명제적인 정보나 의미가 없으며 대화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특정한 언어형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³⁾

담화표지 ‘인자’는 ‘지역에 따라서 ‘인제, 인저’ 등 형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부사 ‘이제’와 구분을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인자’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말 가운데 많이 쓰이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개별 연구는 아직 미진하며,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그 개별적 기능에 대한 언급도 부족한 편이다.

지금까지 ‘인자’에 대한 연구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이원표(1992)의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기능에 대한 연구는 대화에서 화자의 화행진행표시의 ‘이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자가 자신의 화행을 시작할 때 이런 자신의 화행에 서두를 제공해주는 경우, 둘째, 앞에서 진행돼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의 상황을 유도하는 경우, 셋째, 화자가 새로운 하위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 넷째, 화자가 일단 어떤 화제를 담화에 도입한 후에 그 화제와 관련해서 길게, 부연설명을 하거나 중요한 요점의 목록 등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섯째, 화자 자신이 방금 앞에서 한 말을 좀 다른 말로 환언 내지 요약의 화행을 하는 경우, 여섯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남이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일곱째, 실수의 교정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기갑(1995)은 한국어의 담화표지 ‘이제’의 연구에서 담화표지 ‘이제’가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돕는 표지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이제’는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 후행 발화와 의미적 연결을 도우면서, 후행 발화에

화제, 상황, 메시지’ 등이 필요하고, 발화의 내용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통사적 특징도 필요하며,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타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는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 3) 담화표지는 개인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공간적으로나 계층적인 사용면에서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면 발화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및 청자로 하여금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 4) 최현배(1956:579)에서 ‘이제’는 시간부사인 ‘때 어찌씨’로서, 때의 시점을 보이는 ‘지나적, 이적, 율적’ 가운데 ‘이적(현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 서정수(1996:461)에서 자유부사류는 모든 동사류와 어울릴 수 있는 부사로서, ‘이제’는 자유부사류 가운데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라고 밝히고 있다.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임규홍(1996)의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에서 ‘인자’의 담화적 기능을 ‘붙듬, 바뀔, 주의집중, 시간별기’ 등과 같은 복합적인 담화기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담화 표지의 기능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불안정하기에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광희(2002)는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과 응집성 실현의 연구에서 담화표지는 담화상에서 의미적 응집성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속 기능의 어휘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담화표지 ‘인자’의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을 3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인자’의 텍스트 기능이 정보의 유도 기능을 보이는데 특히 이 정보를 선행 정보에 통합시키게 되고, 둘째, ‘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 과정은 테마(theme)와 레마(rheme)의 연결과 정이며, 셋째, 담화표지 ‘인자’는 레마를 유도하기 때문에 담화의 도입정보에는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박지윤(2011)은 경북방언 ‘인자’의 담화표지 실현 양상의 연구에서 기존 담화표지의 논의는 주로 중앙어의 유형별, 실현 양상별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어의 담화표지의 연구가 미비하였음을 밝히면서, 경북방언의 ‘인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확인, 지연, 화제전환, 유도, 다짐, 강조, 문장접속’의 기능이 사용되며,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군말, 머뭇거림, 덧말’의 기능이 활발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⁵⁾ 따라서 본고는 실제적으로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의 김제지역어 구술 자료와 국립국어연구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 중 남원지역어와 무주지역어를 연구 대상 자료로 삼았다.⁶⁾ 남원과 무주는 같은 전북지역이지만 남원지역은 전라남도 구례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으며,

5) 김영철(2010)에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전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언어의 사용양상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화자, 청자, 시간, 공간, 상황 등이 긴밀하게 결합된 요소로서 그 자체가 어휘, 의미, 통사적인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6) 본고의 자료는 2004년 전북대 민중생활사 연구단의 지역어조사 사업과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 사업 중 2005년 남원지역과 2006년 무주군 지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한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무주지역은 충남 금산지역과 경상남도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서로 상당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김제지역은 전북지역의 서쪽지역이다. 전북지역에서 광범위한 사용분포를 나타내는 담화표지 ‘인자’가 각 지역의 화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면서 다양한 담화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⁷⁾

본고는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담화표지의 개념과 담화표지 ‘인자’에 대하여 간략히 살피고, 3장에서는 담화표지 ‘인자’가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개별 담화표지 연구에 일조하고, 또한 우리말 구어의 특징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⁸⁾

2. 담화표지 ‘인자’의 특성

2장에서는 담화표지의 개념과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 ‘인자’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⁹⁾

-
- 7) 한 화자가 발화하는 하나의 담화에서도 상황에 따라 ‘인자’와 ‘인제’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전북의 내륙지역과 타 지역과의 경계지역에서 사용되는 ‘인자’의 담화기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8)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 ‘인자’를 대상으로, 중앙어와 지방어, 또는 지방어와 지방어 사이의 담화상의 기능을 비교나 대조를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만, 전북지역에서 활용되는 ‘인자’의 담화상의 기능을 먼저 파악하는 일차적인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 9)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한규(1996)에서 담화 표지어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 또는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말하는 이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이다”고 밝히고 있다.
- Schiffirin(1987)에서 담화표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서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요소이다”고 하였는데 발화의 단위란 화행 뿐만 아니라 문장과 그 보다 작은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끝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서 담화표지의 의미는 발화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또는 표현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담화에서의 연결적 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 전영옥(2002)에서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담화표지란 담화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에서 말의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일상의 대화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이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담화표지가 화·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그들이 속한 언어사회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담화 상에서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¹⁰⁾

임규홍(1996)에서 모든 담화표지는 그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기원적 어휘의미를 기저로 하면서 그것이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서 점점 상당히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복잡 다양한 담화효과를 가진 담화표지로 변형된 것으로 보면서 담화 문법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담화(입말)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다. 즉 담화라는 독특한 실현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즉 형태적으로 접사가 결합되거나 어형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셋째,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즉 담화표지는 문법적으로 다른 성분과 결속하지 않는다. 넷째,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즉 어떤 담화표지가 성별이나 연령, 다양한 사회적 계층, 그리고 공간적으로 두루 쓰인다. 다섯째, 사용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담화표지가 아무리 임의적 일지라도 그것이 담화 상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담화표지는 분명 어떤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일곱째, 모든 담화표지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¹⁾

요컨대 담화표지란 발화의 전달에 관여하는 언어형식이다. 의미적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어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도 작용하지 않는 언어수행으로서, 화자가 어떤 화제를 표현하거나 발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적인 문법 기능도 없는 언어형식이다. 즉 의미적 결속을 위한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화용론

10) 담화표지는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실현됨을 살필 수 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감탄사, 관형사, 동사, 대명사, 부사, 용언, 조사' 등의 품사들이 담화표지로 실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나 절, 즉 '동사구나 문장' 등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11) 본고에서는 임규홍(1996)의 담화표지 특성을 기반으로 '인자'가 담화표지임을 밝히고자 한다.

적 측면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의하여 좀 더 담화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통사적인 차원에서는 문장 내에서 출현 양상도 상당히 자유롭고 비규칙적이며 수의적이다. 그러나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자’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인자’는 문장 상에서 시간부사의 기능을 담당 한다.¹²⁾ 부사는 각 용언이나 동사구, 관형사구, 다른 부사구, 그리고 절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하며 그것들의 서술 내용이나 정도를 여러 가지로 한정하는 수식어를 말한다. ‘인자’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때에’ 또는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의미를 가지며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한다.

(1) 가. 학생들이 **인자** 떠났다.

나. 돈도 떨어지고 **인자** 어떻게 하지?

예문 (1 가)에서 ‘인자’는 시간상으로 ‘바로 이때에’를 의미하며 바로 뒤에 오는 서술어인 ‘떠났다’를 수식하고 있고, (1 나)의 ‘인자’는 ‘지금부터 앞으로’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돈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앞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다.

둘째, ‘인자’는 담화표지로서 기능을 한다. 부사 ‘인자’는 구어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문장 상에서 부사의 수식 기능을 하지 않고, 출현 위치도 상당히 자유로우며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그 본래의 의미를 갖지 않는 화용적 특성을 보인다. 즉 부사에서 담화표지로 기능이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³⁾

12) 서정수(1996:460-466)는 시간이라는 범주는 공간 개념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구획 짓는 구실을 하는데 여러 나라말에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이나 문법 범주가 발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 이기갑(1995:269)에서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시간부사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적 요소라면, 담화표지는 단순히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담화의 장치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임규홍(1996:8-9)에서는 시간부사 ‘이제’의 의미가 선행 행위나 상태에 대한 ‘대조’, 사건의 ‘전환’인데, ‘이제’가 담화 환경에서 점차 ‘대조’의 어휘적 의미는 약화되면서 담화 표지로 변

(2) 가. 그러면 **인자** 미영나무가 **인자** 이르케 자라면 거그서 **인자** 다래가 여러가
꼬, 다래가 피머는 모카가 하야니 붕울붕울허니 모카가 거그서 피어.<최
연순, 남원>

나. 그러면 미영나무가 이르케 자라면 거그서 다래가 여러 가꼬, 다래가
피머는 모카가 하야니 붕울붕울허니 모카가 거그서 피어.

예문 (2 나)의 예문은 (2 가)에서 사용된 ‘인자’를 생략하였지만 문장의 의
미와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인자’는 문장 구성에 있어서 필수
성분이 아니고 수의적인 독립성분이기때문에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
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생략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부사의 기능을 하는 ‘인자’가 담화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
기로 한다

첫째, 형태상으로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가. 인자 출발한다.

나. ?**인자**이/**인자**가/**인자**에서/**인자**께서/**인자**을/**인자**를/**인자**으로 출발
하다.

다. ?**인자**은/**인자**도/**인자**이나 출발하다.

예문 (3 가)의 시간부사 ‘인자’는 형태적으로 고정성을 지니기에 (3 나)의
예문과 같이 조사가 결합되거나 또는 (3 다)의 예문과 같이 보조사와 결합이
어색하기에 다른 형태로 대치되지 않는다. 즉 담화표지가 문장이나 담화 상에
서 활용이나 곡용을 하면 비문법적이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분이다.

(4) 가. 그러면 **인자** 씨 따로 빠지고 모카 따로 빠지고 허머는 **인자** 고노를
인자, 엔나레는 그 화리 요로케 이써. 화를 요로케 맨 노미, 요로케 화를
매가꼬 고노를 이키 잡꼬 툅 툅 툅 텅기면.<최연순, 남원>

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 그러면 씨 따로 빠지고 모카 따로 빠지고 허머는 고노를, 옌나레는
그 화리 요로케 이쎄. 화를 요로케 맨 노미, 요로케 화를 매가꼬 고노를
이키 잡꼬 툭 툭 툭 텅기먼.

예문 (4 가)의 문장에서는 ‘인자’를 생략하였지만 문장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인자’는 필수성분이 아니고 독립성분으로서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생략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발화의 어두, 어중, 어말에 쓰이는데 담화표지가 사용된 문장의 위치나 문맥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⁴⁾

- (5) 가. **인자** 새어매가 임시를 히가꼬, 고놈 인자, 날따린디.<최연순, 남원>
나. 지주 소작 그러케 허먼 게 제, 지주가 맘대로 인제 이 사람 쥐따 저
사람 쥐따 **인자** 그건 지주 맘대로 쥔리가 인제. 그 사람드른. <이중성,
무주>
다. 안안팍 머심둔단게 나는 **인자**. <최채우, 김제>

예문 (5 가, 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표지 ‘인자’는 발화의 어두 및 어중과 어말에 두루 쓰이고 있다. 예문 (5 가)의 예문에서 ‘인자’는 어두에 나타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화제의 시작이나 또는 주의 집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5 나)의 ‘인자’와 (5 다)의 ‘인자’는 어중과 어말에 나타나 선행 발화에 대한 보충이나 경계 표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담화표지가 주로 어두에 출현하는 것에 비하여 ‘인자’는 출현하는 위치가 매우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담화표지 ‘인자’는 발화의 어두 및 어중과 어말에 사용하는 자연스런 언어형식으로서 담화표지가 어두에 위치하

14) 전영옥(2002)에 의하면 담화표지 ‘인자’는 억양 단위의 시작과 중간에서 실현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생각의 흐름 단위인 억양 단위와 관련된 담화표지가 담화 연결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는 일반적인 특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담화표지 ‘인자’는 일반적인 담화표지의 특성인 발화의 첫머리에 출현하여 화제의 시작이나 주의를 집중하여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언어형식의 범주를 벗어나 어중이나 어말에 두루 사용되는 매우 자유스러운 출현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담화표지의 반복 사용이나 다른 담화표지와 연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인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6) 가. 왜. 나름대로 **인자** **막** 시방 우리 아들 새끼들 가보면 호텔으 가서도
하고 그러드만.<김성문, 김제>

나. 머 우리가 저, **머 인자** 책갑가튼거 이런거나 **거 거시가 까 머 인자** 무신
똥.<이종성. 무주>

다. 다른 사람미 써다 주기도 하고, 보:똥이면 **인자 거, 거기 그** 가멸, 가멸
떠가지고 오면 거그서 또 쓰는 수가 마나요.<김임순, 무주>

예문 (6 가)의 경우에는 담화표지 ‘인자’와 ‘막’을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말할 내용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였고, (6 나, 다)의 경우에도 다양한 담화표지를 함께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시키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가 있는 언어형식임을 엿볼 수 있다.

담화표지 ‘인자’는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로우며 생산적이다. 일상 생활에서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담화표지로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의 양상이 쉽고 다양하게 활성화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예문 (6)에서 담화표지 ‘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담화표지로는 ‘똥, 그’ 등 감탄사, 관형사, 그리고 부사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강조’의 의미를 갖는 언어표현으로 청자에게 사용되는 언어형식임을 엿볼 수 있다.¹⁵⁾

요컨대, 담화표지의 특성은 첫째, 형태상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셋째, 발

15) 담화표지가 연이어 결합되는 양상은 관점에 따라 ‘머뭇거림’이나 ‘시간별기’ 또는 ‘군말’로도 볼 수 있다.

화의 어두 및 어중과 어말에 쓰일 수 있는 경우, 넷째, 반복과 다양한 담화표지와와의 연속 사용 등에 의하여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인자’는 일반적인 담화표지가 가지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담화 상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담화표지 ‘인자’의 담화기능

3장에서는 담화표지 ‘인자’의 담화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언어표현으로 화자와 청자, 담화의 상황, 그리고 담화표지가 사용되는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화제를 전개하거나 또는 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형식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⁶⁾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 ‘인자’는 담화 상에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은 ‘시간 별기와 선행발화의 보충설명, 주의집중, 화제전환’ 등 다양한 담화기능을 살필 수 있다.¹⁷⁾

3.1. 시간 별기

담화표지 ‘인자’는 담화 도중 적절한 후행 발화가 생각나지 않거나 또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인자’를 사용하여 ‘시간 별기’의 기능을 활용한다. 즉 발화하고자 하는 단어가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발화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 시간별기의 기능을 이용한다.¹⁸⁾

16) 본고의 담화표지의 기능 분석은 전영옥(2002)의 한국어 담화 표지의 연구에서 언급한 첫째 ‘화자와 화제결속’, 둘째, ‘화자와 화제결속’, 셋째, ‘화자와 청자결속’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17) 담화 기능은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에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 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18)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인자’가 활용되는 기능으로 ‘주의집중’이 대략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적인 화자의 언어수행일 수도 있으나 전북지역 화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 (7) 가. 그러면 **인자** 이르게 **인자** 고치를 **인자** 쭈신큐 요만헌 거시 이써. 그먼
인자 소케 탄 노물 요만치썩 노코 소느로 이르게 몰면 이르게 또르르
 푹 요로케 몰아져.<최연순. 남원>
- 나. 거 **인자**, 거 다 꼴썩 꼴썩 이리미 인는데 생가기 안나네.<이종성. 무주>
- 다. 머 우리가 저, 머 **인자** 책갑가튼거 이런거나 거 거시가가 머 **인자** 무신
 뵈.<김임순. 무주>
- 라. 그런디 내가 **인자** 거시기지. 고기, 돼야지 고기.<최채우. 김제>

예문(7 가)에서 ‘인자’는 담화가 진행되는 발화의 중간 중간에 나타났는데 특정 사물에 대하여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기에 이를 보충 설명 하면서 ‘인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다음 발화의 내용을 생각하고 조합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나)에서도 지시어인 ‘그’를 사용하면서 담화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하여 시간별기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7 다)는 ‘저’와 ‘뵈’를 연속사용하면서 뒤에 ‘인자’를 첨부하여 후행발화인 책값에 대한 표현을 이끌어내는 시간별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7 라)에서는 ‘인자’를 먼저 사용하고 뒤에 또 다른 담화표지인 ‘거시기’를 사용하여 후행 발화 내용을 적절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⁹⁾

3.2. 선행 발화의 보충 설명

담화표지 ‘인자’는 앞선 발화의 내용에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부연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내용을 보충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담화표지로서 ‘인자’를 사용하여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8) 가. 그러면자 고노를 열개를 가라글 딱 히가꼬 거그다 꺾어서 **인자** 실 모습

19) 전영옥(2002)에서 시간별기에 속하는 담화표지로 ‘자, 저, 뵈, 근까, 이, 그, 어, 아, 그래가지고, 어뵈, 무슨, 거기, 이런거, 그런 거’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열개를 이르게 해서 모스브로 인자 줄~~열켄 나려. 인자 그건 베 난다
구려.<최연순, 남원>

나. 아, 여그는 눈도 코도 몰르고 시집왔어. 말로만 중신해가꼬. 선만 보도
안하고 그런게. 우리집 아자씨가, 어머니가 선 봤으면 나 시집 안 왔지.
안이빠, 찌간한게. 보도 안하고 **인자** 그렇게. 혼인말해가꼬 인자 시집왔
지. <강효순, 김제>

다. 막장꾼. 그 분이 인자 뛰여 흙을 인자 삼태미라고 하는 거 **인자** 끌어
올리는 거, 거그다가. 삼태미나 웅챙이라고도 혀쥌.<강을규, 김제>

라. 그 때는 각종 나물이 다 있어. 나물. **인자** 막 썩도 나고 썩도 갖다 끓여서
인자 배고픔을 채우고, 다른 나물같은 것이 많여. 먹을 나물이 많여. <안
옥순, 김제>

예문 (8 가)에서 ‘인자’는 앞의 베짜는 것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면서 자연스
럽게 앞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8 나)에서도 ‘인자’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선도 안보고 시집을 오게 된 사연에 대한 내용을 보
충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 다)의 ‘인자’ 역시 앞선 발화인 흙을 끌어올리
는 삼태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내용을 강화 또는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8 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각종 나물
중에서 ‘썩’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 담화표지 ‘인자’가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인자’는 선행 발화를 내용을 강조 또는 보충이나 부연을
함으로써 선행 발화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3. 주의 집중

담화표지 ‘인자’는 화자가 담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
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하는 ‘주의집중’ 기능을
한다. 즉,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발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려
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20) 화자는 청자에게 화제 및 담화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함으로써 화자가 추구
하는 발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할

(9) 가. 보디지븐 **인자**, 보디라고 인자 가늘게 요만허게 딱 이써. 그먼 그 가는 대쪼가그로 이르게, 이르게 가늘게 히서 요만헌 보디지비 딱 이써 요로 케.<최연순, 남원>

나. 그때가 **인자** 여덟 살 먹어서부터 일을 했지, 뭐. <이기돌, 김제>

다. 그기 왜그냐면, 부무가 어릴찌게 거 아드를 한 삼년가는 참: 그 똥이고 머고 **인자** 그 참 다: 바다내고 키우니라고, 부무가 **인자** 그 마니 거치를 행짜냐요.<김임순, 무주>

라. 머리를 찢른디 그 때는 머리를 찢르고 갔더니 **인자** 우리 아버님헌티 쫓기날 뻔 알었단게. 이게 머리 찢렸는개벼.<안옥순, 김제>

예문 (9 가)에서 담화표지 ‘인자’는 바디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바디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9 나)는 특정 시기인 ‘여덟 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의 주의집중을 요하는 담화표지 ‘인자’를 활용하였으며, (9 다)에서는 부모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인자’를 사용하여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9 라)는 긴 머리를 짧게 자른 후에 아버지께 혼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자’를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화자가 청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청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담화표지 ‘인자’가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3.4. 망설임

화자가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을 언급할 때 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거나, 주저하는 등 망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자’를 사용한다.

(10) 가. 터세는 **인자**, 그 서로 처시네 매여쫓개.<최연순, 남원>

나. 머 아무걸도 바메 머, 야 이 너 저 배고푸면 **인자** 야시기 에이면 머라도

수도 있다.

아무끝또 안취썌요.<김임순, 무주>

다. 이제 그 때만 히도 **인자** 꺾꺾허니 속으다 내다 담아두고 어찌고 그러믄
안 되갓어.<최채우, 김제>

라. 나는 우리 애기, 막내를, 끝터리, 끝터리 나 갖고, 그 때는 아무 것도
몰르고 **인자** 낳는대로 다 낳는다고 야닭을 낫잖아, 그렇게. 여 **인자**
낳 갖고는 참 좋았어,<안옥순, 김제>

예문 (10 가)에서는 텃세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텃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곤란함을 조심스레 비추면서 ‘인자’를 사용하고 있고, (10 나)는 밤에 공부하는 아들에게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아픈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자’를 사용하여 망설임을 나타내고 있다. (10 다)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자’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으며, (10 라)에서는 여덟 명의 자녀를 출산한 과거를 말하면서 자신이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 마음을 ‘인자’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망설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자’를 사용한다.

3.5. 화제전환

화자는 담화표지 ‘인자’를 사용하여 기존의 대화의 내용을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²¹⁾

- (11) 사니로 가서 인자 거 가서 간파니 거기도 인자 머 제사 제사 음식꺼등건
해가지구 그래구 술 부셔노코, 가 절하고, 머 거시가고 그라구서 인제.
참 인자, 거 건터등거 머 그 그랑개 이이렁 먼, 상지 복인짜나요? 상지복
그렁거 아까도 내가 애깁찌마는.<이종성, 무주>.

21) 화제전환의 기능은 생산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술담화에서 지역어 조사자가 ‘참 인자’ 또는 ‘자 인자’와 같이 다른 내용 전개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문 (11)의 답화표지 ‘인자’ 앞에는 참이 선행되고, ‘인자’ 뒤에는 잠시 쉽
이 존재한다. ‘참’과 ‘인자’가 함께 쓰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결하고 새로
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²²⁾

요컨대, 답화표지 ‘인자’는 답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답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화의 내용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자’를 사용하여
화제전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답화표지 ‘인자’는 답화 상에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시간 별기와 선행발화의 보충설명, 주의집중, 화제전
환’ 등의 다양한 답화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단순히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언어 형식이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다양한 우리말 답화표지 중 답화 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답화표지
‘인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답화표지는 일상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화·청자가 속한 언어사회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답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언어형식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답화표지 ‘인자’는 빈번하게 답화 상에
서 사용되며, 답화 상에서 다양한 답화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답화의 결속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언어
형식임을 살필 수 있다.

답화표지 ‘인자’의 답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별기’의 기능으로, 답화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후행 발화가 생각
나지 않거나 또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인자’를 사용하여 시간 별기의 기능

22) 부산인 ‘참’ 역시 상황에 따라 답화표지로서 역할을 하며, 화제전환의 기능을 담당한다.

을 활용한다. 이는 담화 상에서 화자가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짧은 시간에 적절한 후행 발화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선행 발화의 보충 설명’의 기능으로, 선행 발화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부연을 함으로써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셋째, ‘주의집중’의 기능으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담화표지 다음에 언급되는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넷째, ‘망설임’의 기능으로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을 언급할 때 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위한 방법으로 ‘인자’를 사용한다.

다섯째, ‘화제전환’의 기능으로 기존의 대화의 내용을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도록 하는 것으로, 담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화의 내용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함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전북지역에서 활용되는 담화표지 ‘인자’는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담화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로 ‘시간별기’의 기능이 매우 강함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희(2002),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와 응집성 실현, 한국어 의미학 15집, 한국어의미학회.
- 김영철(2010), 국어담화표지 ‘막’ 고찰, 국어문학48집, 국어문학회.
- 박지운(2011), 경북방언 ‘인자’의 담화표지 실현 양상, 화법연구 18권, 한국화법학회.
-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1,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원표(1992),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기능, 인문과학 제68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3,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1996), 국어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2, 담화·인지언어학회.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전통화법과 화법교육.
- 최현배(1956), 우리말본, 정음사.
- Schiffrin(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문초록】

본고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부사 ‘인자’에 대한 특성과 함께 담화표지로서 담화 상에서 어떠한 담화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담화표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사로서 ‘인자’의 특성과 함께 부사 ‘인자’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담화표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3장에서는 담화표지 ‘인자’의 출현의 위치와 다른 담화표지와의 결합관계,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기능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인자’의 담화기능은 ‘선·후행 발화의 경계표시 기능,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후행 발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벌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인자’는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담화표지, 담화기능 구어, 발화

【Abstracts】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 of ‘Inca’ to discourse marks in Korean language

Kim, Young-cheo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of ‘Inca’ as an adverb and the function of it as a discourse mark in everyday Korean language.

‘Inca’ function as an adverb in sentence, also its faculty is changed its meaning and function by the intonation or situation.

The discourse function of ‘Inca’, the discourse mark is various as a function to mark boundary of foreground and background. supplementation of precede conversation, an attention, in order to gain time” by the situation.

‘Inca’ is unnecessary in meaning of sentence, but it is a necessary linguistic form to communicate the purpose or intention of discourse to the listener with effective.

Key words : discourse mark, discourse function, spoken language, utterance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